

# ‘AI챗봇 도입’ 목포 관광·경제 활성화 나선다

## 국내외 구분 맞춤형 정보 제공 체감↑ 선진관광 인프라 구축

목포시가 지자체 관광 앱 최초로 챗 GPT 기반 AI챗봇을 도입한다. 스마트 도슨트 앱 고도화 사업을 추진, 국내외 관광객 구분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AI챗봇 도입으로 관광객들의 편의성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자체 관광 앱(APP) 최초로 Open AI 챗GPT 및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한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

챗GPT는 OpenAI사에서 개발한 인

공지능(AI) 챗봇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 해외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하이퍼클로바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으로 한국어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챗GPT의 한계를 보완해 국내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관광 정보를 즉각적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목포시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의 일환인 스마트 관광 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목포시의 대표 관광 어플 ‘비짓목포(Visit Mokpo)’, ‘스마트 도슨트’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현재 ‘비짓 목포(Visit Mokpo)’ 앱은 목포의 다양한 관광지 및 맛집·숙박·축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 도슨트’ 앱은 목포의 주요 관광지를 다국어

(한·영·일·중)로 해설해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착수보고회를 갖고 관광 편의성 강화를 위한 AI챗봇, 콘텐츠 차별화, 예약결제 고도화 및 서비스 강화 등 이번 고도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바 있다.

이번에 개발되는 새로운 AI챗봇은 기존 앱 내에서 관련 연결 페이지만 제공하는 챗봇 기능을 개선해 구어체 형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관광객들은 목포의 맛집, 관광명소, 여행지 추천 등 실시간 대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목포시는 AI챗봇이 적용된 비짓목포

와 스마트 도슨트 앱을 올해 10월 정식 서비스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 초기 단계이며 관광객들이 사용하기 편한 앱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목포시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성 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에 인공지능 챗봇을 적용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관광 기술을 융합해 체감도 높은 선진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관광거점도시에 걸맞은 관광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 “새로운 북항시대 100년 온힘”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김청룡 목포수협조합장이 목포수협 대회의실에서 목포시선관위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사진)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청룡 현 목포수협조합장은 단독출마 해 무투표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김 조합장은 2016년 11월 보궐선거를 통해 제20대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난 선거에서 전남지역 최고 득표율 80%로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임기동안 사업규모 6800억원에서 약 2조원으로 성장했으며 무투표 2년연속 전국 1위, 목포수협 북항이전(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사업 등 실적을 이뤘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4월 제 10회 수산인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김청룡 조합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무투표로 당선시켜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북항시대 100년, 더 큰 목포수협을 위해 조합원과 생산어업인이 바다에서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임기 4년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4년 임기가 시작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 소통·공감 시민과 대화 성향 목포시, 10일부터 23개동 순회

목포시가 지난달 10일 부주동을 시작으로 23개동 순회를 시작해 지난 8일 용당 1동을 끝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시는 시정 추진방향을 시민과 공유하는 한편 시민과 대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건전한 제안과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에서 20건의 정책 질의와 95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은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생활민원 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접수사항은 도로개선 22건, 공원관리 22건, 안전 7건, 복지관련 6건 등이다.

목포시는 현장 질문과 서면으로 접수된 모든 의견을 관련부서의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한 박 시장은 단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지시했다. 중장기적인 검토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하고 해당 민원과 관계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신안 임자면 연합회와 자매결연 목포 용당2동 자생연합회



목포 용당2동 자생조직연합회(회장 이광숙)와 임자면 자생조직연합회(회장 김문창)가 자매결연 협약을 가졌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용당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생조직 대표가 서남권 상생 발전과 번영을 결의했다.

양 단체는 이번 자매결연을 필두로 농촌 일손돕기, 농수산물 장터, 각종 행사 초청 등 활발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가지며, 도·농상생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4월7일부터 열리는 임자면 톨픽축제와 4월 8~9일 열리는 유달산 봄축제를 상호 방문한다.

목포=정기찬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달 10일 부주동을 시작으로 지난 8일 용당1동까지 23개동을 순회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 했다. 이번 대화에서 정책질의 20건과 건의 95건을 접수했다. 시는 업무 시급성을 판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목포시 제공

## 목포시-덴마크 교류, 글로벌 수산식품 도시 도약

목포시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전국 제 1의 수산식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7일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가 덴마크와 해조류 연구 및 사업 개발(R&D)에 대해 교류 협력하면서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장(디테 린더 바이씨)과 현지 해양수산 스타트업 기업 대표 등이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갖고 두 센터 간 해조류 연구 협업모델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으로 우리나라와 덴마크 양국간 대학, 연구기관 및 R&D기반 기업들 간의 연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고등교육 분야에서 네트워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목포시와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지난해 6월과 9월 화상으로 한-덴 해조류 교류협력간담회를 가졌다. 화상회의에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한국 해조류 산업 현황과 센터의 R&D 성과를 소개하고 김을 포함한 전남 해조류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10월 덴마크 대사관 초청으로 덴마크 국립공과대학 식품연구소와 북유럽 해조류 컨퍼런스에 참석해 전남 해조류 산업과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홍보하고 다양한 김 관련제품을 전시했으며 현지 산·학·연 분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 등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 김 등 해조류 산업의 미래에 대해 상호의

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처럼 목포시는 수산식품수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는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양수산부 수산식품클러스터 1호 사업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사업비 1150억원을 투입해 대양산단에 부지 2만8133㎡, 연면적 4만6616㎡ 지상5층 규모로 임대형 가공공장, 마른 김 거래소, 연구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출지원 시설 등을 구축함으로써 수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산 식품기업 36개 신규 투자 유치로 2154명 일자리 창출, 1978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 출자·출연기관과 시정 발전방안 모색

목포시가 출자·출연기관과 시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목포시는 박홍률 시장 주재로 목포시 의료원, 목포문화재단, 목포장학재단, 목포복지재단, 목포국제축구센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수산물유통센

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등 총 9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들과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 역점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사업을 속도

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박홍률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은 목포 발전의 중요한 축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사회가 급변하면서 행정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노인일자리 사업 진행 34개사업 3806명 참여

목포시가 올해 34개 사업 380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목포시 노인복지관 외 5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2023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갖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발대식은 목포시노인복지관과 하남노인복지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와 (사)건강나눔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발대식 후 안전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올 노인 일자리에 3806명이 참여한다. 지난 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 공익형 1375명을 포함해 7개 수행기관과 협약을 맺어 34개 사업 총 3806명의 일자리를 진행하며 134억4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284명 증가한 것으로 예상도 9억원 늘었다. 노인 일자리 증가는 민선 8기 노인 일자리 확대 공약 실천 일환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 분야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부여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